

투데이

어등산 골프장 조정안 수용여부 주목

先개장 특혜시비 논란속 내일 이의제기 시한 마감 사업자측 수용 입장...찬반 팽팽 광주시 오늘 결정

골프장 선(先) 개장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사업자간 법정 분쟁이 빚어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법원의 이의신청 마감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어등산 리조트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일지 어등산 관광단지 분쟁이 일단락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특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와 (주)어등산 리조트에 따르면 시는 18일 어등산 관광단

지 사업에 대한 최종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정안 거부로 결론이 난다면 오는 19일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사업자측은 일단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일이 임박함에 따라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해 결과에 따른 부담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시가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핵심인 테마파크 조성은 불투명해지고, 당초 인센티브로 주어진 골프장만 개장하는 기형적인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계획도 개발사업이 수월하도록 전면 수정돼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시는 일단 기존 4만4000평에 이르는 숙박시설 부지를 2만평으로 축소하는 한편, 전체 부지 중 4만평을 상업용지로 전환해 대기업이 추진중인 명품 아울렛 부지로 매매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시 관계자는 "조정안 수용시 주요 시설 개발계획을 '제로상태'에서 시작할 방침"이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숙박시설 등은 축소하고, 상가시설을 대폭 늘려 민간에 다시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골프장과 명품 아울렛 등 돈 되는 사업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오는 19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안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잘 사는 전남 만들어 봅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잘 사는 전남 건설'을 위한 내년도 새 정책을 발굴하는 신규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전남도 제공>

나로호 3차 발사 대비 안전통제 최종 점검

19~21일 정부·군·경·지자체 등 15개 기관 참여

10월 26일~31일로 예정된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고층 나로우주센터에서 정부·군·경·지자체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19~21일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나로호 발사시 나로우주센터 주변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고 발사경로상의 운행선박·항공기·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종합적인 통제대책을 점검한다.

또 화재와 기름유출 등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이 신속히

구조대출할 수 있도록 실제 대항군을 편성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제압하는 훈련을 한다.

이 밖에 지난달 기관별 통제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휘조 훈련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해·공 전방에 걸친 안전통제 상황을 점검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흔한 이름 '김영숙' 4만335명 111개 姓氏 '김' 최다 '갈' 최소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 20명 중 2명은 이름이 같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나라에서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 정보는 17일 자사가 보유한 성명·주민등록번호 정보 4266만2467개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동일한 사람 중 동명이인이 있을 확률은 11.7%라고 밝혔다.

내국인의 성명은 총 139만4131개가 있었는데 이 중 동명이인이 없는 이름은 전체 인구의 1.28%인 54만7352명에 불과했다.

같은 이름이 2~4명인 인구 수는 96만4019명(2.26%), 5~10명은 126만9129명(2.97%), 11~20명은 148만6389명(3.48%), 21명 이상은 3839만5578명(90.0%)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김영숙'으로, 동명이인이 4만335

명에 달했다.

김정숙(3만9663명), 김정희(3만7419명), 김영희(3만5190명), 김영숙(3만48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명 이상이 동일 성씨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렸을 때 국내에는 총 111개 성씨가 존재했다.

김(21.54%), 이(14.79%), 박(8.43%), 정(4.83%), 최(4.72%) 순으로 많았고, 111번째 성은 갈씨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시외버스도 인터넷 예약

금호고속 서비스 제공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은 17일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 노선도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예매를 인터넷 사이트 '버스타고(www.bustago.or.kr)'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시외버스 노선 예매는 광주에서 출발하는 전 노선에 적용된다. 또 광주~목포·여수·순천·세종 등 일부 노선은 왕복 예매도 가능하다. 일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설치도 통해 모바일 예약도 지원한다.

예약과 동시에 승차권 출력이 가능해 터미널에서의 대기시간 없이 바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코버스 모바일 사이트(m.kobus.co.kr)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신안 안좌~자라도 연도교 가설공사 21일 기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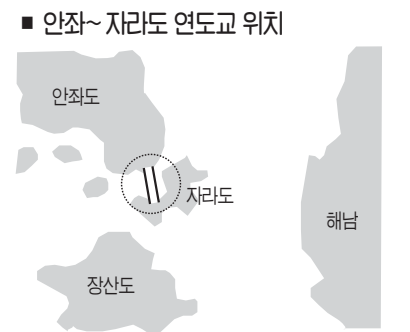
전남도는 17일 "오는 21일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교량 중 하나인 신안군 북호항에서 안좌도~자라도 연도교 가설공사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466억원을 투입된 이 연도교는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해상교량 670m, 접속도로 1333m 등 총연장 2003m로 국내 최장 1주탑 콘크리트

사상교로 건립된다.

이 연도교가 완공되면 압해도~압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와 연계돼 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섬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흥사덕 고발...금품수수 장향숙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4·11 총선 직전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흥사덕 전 의원과 흥 전 의원에 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흥 전 의원은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지난 3월 5000만원을 건네 받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건 모두 제보가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법정치자금 제공 신고 3명에 포상금 1억5천만원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및 지방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및 순천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전국 모 노조조합이 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 등 제보자 3명에

게 총 1억5000만원의 정치자금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전국 모 노조조합이 B정당 추천 국회의원(비

례) 선거와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에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노조의 자금을 후보자의 선거운동지원경비로 70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 등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선관위는 앞서 해당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노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총 11명이 기소돼 지난달 27일 1심 법원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최권민기자 cki@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 리모델링전 | 부채현황 | 1년이자비용 |
|------------|---------------------|--------------------|
| 농협중앙회 | 70,000,000원 | 4,600,000원 |
| 씨티은행 | 15,000,000원 | 2,100,000원 |
| 지역농협 | 10,000,000원 | 1,170,000원 |
| 상생카드론 | 9,000,000원 | 1,880,000원 |
| 대부유지속 | 8,000,000원 | 2,800,000원 |
| SC저축은행 | 37,500,000원 | 11,200,000원 |
| 솔로몬 저축 | 15,000,000원 | 4,485,000원 |
| 대부업체 | 20,000,000원 | 7,800,000원 |
| 총부채 | 180,450,000원 | 36,035,000원 |

| 리모델링후 | 부채현황 | 1년이자비용 |
|------------|---------------------|--------------------|
| 농협중앙회 | 100,000,000원 | 6,750,000원 |
| 국민은행 | 40,000,000원 | 3,200,000원 |
| 씨티은행 | 5,000,000원 | 4,500,000원 |
| 총부채 | 190,050,000원 | 14,450,000원 |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질적인 질환들은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중증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